

2~11p : 문제

12p : 빠른정답/ 문제별 오답률

13~19p : 해설

21 6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 제15항과 제18항은 용언이 활용할 때의 표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5항은 ‘웃다, 웃고, 웃으니’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제18항은 ‘긋다, 그어, 그으니’처럼 ㉠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한글 맞춤법의 이러한 내용들은 국어사전의 [활용]의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 아래는 국어사전의 일부를 간추려 제시한 것이다.

웃다
발음 [움:따]
[활용] 웃어[우:서], 웃으니[우:스니], 웃는[운:는]

긋다
발음 [근:따]
[활용] 그어[그어], 그으니[그으니], 긋는[근:는]

동사 ‘웃다’와 ‘긋다’의 [활용]에서 각각 ‘웃다’와 ‘긋다’의 활용형과 그 표준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용]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 즉 ‘활용 정보’를 통하여 ㉡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칙 활용 용언 중 동사 ‘벗다’는 ‘벗어, 벗으니, 벗는’처럼 활용하므로 ‘웃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고, 불규칙 활용 용언 중 ‘짓다’는 ‘지어, 지으니, 짓는’처럼 활용하므로 ‘긋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다.

한편 용언이 활용할 때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다’의 활용 정보는 ‘자[자], 자니[자니]’처럼 제시되는데 이때의 활용형 ‘자’는 ‘자다’의 어간 ‘자-’가 어미 ‘-아’와 결합할 때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나 ‘자’로 실현된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좋다’는 ‘좋아[조:아], 좋으니[조:으니]’가 활용 정보에 제시되는데 이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즉 활용 정보에 나타나는 활용형 ‘자’와 ‘좋아’의 표기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5.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르다 - 잠그다
- ② 흐르다 - 푸르다
- ③ 뒤집다 - 끼입다
- ④ 붙잡다 - 정답다
- ⑤ 깨물다 - 엇듣다

[40~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열람한 지역 신문사의 웹 페이지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군민신문
🔍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폐교가 지역 관광 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사진: ○○초등학교 시설 전경

지난 1일 △△군은 폐교된 ○○초등학교 시설을 ‘△△군 특색 숙박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유희 시설을 활용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숙박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시설은 ☆☆마을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건물 내부는 객실·식당·카페·지역 역사관 등으로 꾸미고, 운동장에는 캠핑장·물놀이장을 조성한다.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인접한 ☆☆마을은 2015년부터 캐릭터 동산, 어린이 열차 등 체험 관광 시설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지역 관광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31만 명




2015년

79만 명



2017년


168만 명



2019년


△△군 관광객 및 숙박 시설 수 추이
*자료: △△군 문화관광체육과(2019)

7만 3천 원



당일 숙박
여행 유형

20만 원



여행 1회당 지출액(2018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이번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지역 경제 전문가 오□□ 박사는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더 많다”며 “인근 수목원과 벚꽃 축제, 빙어 축제 등 주변 관광지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2. 06:53:01 최초 작성 / 2021.06.03. 08:21:10 수정
△△군민신문 이◇◇ 기자

👍 좋아요(213)
👎 싫어요(3)
🔗 SNS에 공유
📄 스크랩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증가... 인근 주민들, “유희 시설로 방치되어 골칫거리” 📣
-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지역 명소 ①] ☆☆마을... 다섯 가지 매력에 넘치는 어린이 세상

댓글

방랑자: 가족 여행으로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 **나들이:** 맞아요. 우리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도 좋고요.
↳ **방랑자:**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4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기자는 취재한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취재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고 그중 특정 내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한다. 따라서 기사를 분석할 때에는 기사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를 배치하는 방식, 시각 자료의 이미지 활용 방식 등 정보가 제시되는 양상도 살펴봐야 한다.

- 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에 이어 시각 자료를 배치한 것이겠군.
- ② 지역 관광객의 증가 추세를 부각하기 위해 △△군 관광객 수 추이를 제시할 때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겠군.
- ③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이미지로 강조하여 제시한 것이겠군.
- ④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 관광객 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한 것이겠군.
- ⑤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기 위해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겠군.

21 9

36.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표기	발음
㉠	굳이	[구지]
㉡	웃만	[온만]
㉢	물약	[물략]
㉣	값도	[갑또]
㉤	활는	[활른]

- ①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②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③ ㉢: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④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일어난다.
- ⑤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37.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다음은 접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파생어 들이예요. ㉠~㉥에서 각각 확인되는 접사의 공통점을 설명해 보세요.

㉠ 넓이, 믿음, 크기, 지우개
 ㉡ 끄덕이다, 출렁대다, 반짝거리다
 ㉢ 울보, 낚시꾼, 멧쟁이, 장난꾸러기
 ㉣ 밀치다, 살리다, 입히다, 깨뜨리다
 ㉤ 부채질, 땀나물, 휘감다, 빼앗기다

학생: 예, 접사가 ㉠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① ㉠에서는 용언에 결합하여 명사를 만든다
- ② ㉡에서는 부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만든다
- ③ ㉢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만든다
- ④ ㉣에서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 ⑤ ㉤에서는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만든다

38.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높임 표현이 홑문장에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겹문장의 안긴문장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예문을 만들어 보자.

조건	예문
안긴문장에서의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에서 주어로 실현된 겹문장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셨다.
안긴문장에서의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된 겹문장	㉠
⋮	⋮

- ① 편찮으시던 어르신께서는 좀 건강해지셨나요?
- ② 오빠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
- ③ 나는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날짜를 아직도 기억해.
- ④ 누나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 ⑤ 형은 동생이 찾아뵈려던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21

38.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보 기>

이곳의 지형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

- ① 그 광물이 원래는 귀금속에 속했다.
- ②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몄다.
- ③ 우리는 원두막을 하루 만에 지었다.
- ④ 나는 시간이 남았기에 그와 걸었다.
- ⑤ 나는 구호품을 수해 지역에 보냈다.

39. <보기>는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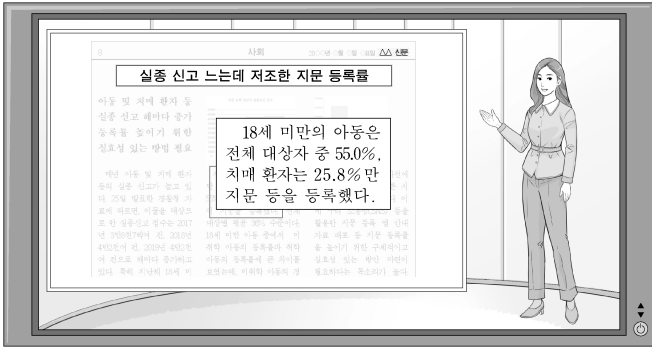
<보 기>

- 제34항 [붙임 1] ‘ㄱ, ㅋ’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 제35항 모음 ‘ㅛ, ㅠ’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엇-’이 어울려 ‘ㅏ/ㅑ, ㅗ/ㅛ’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 제35항 [붙임 2] ‘ㄱ’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ㅑ’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
-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ㅑ’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 제37항 ‘ㅏ, ㅑ, ㅓ, ㅕ, ㅗ’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ㅑ, ㅑ, ㅓ, ㅑ, ㅓ’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 ① ㉠을 적용하면 ‘(날이) 개었다’와 ‘(나무를) 베어’는 각각 ‘갬다’와 ‘베’로 적을 수 있다.
- ② ㉡을 적용하면 ‘(다리를) 꼬아’와 ‘(죽을) 썩었다’는 각각 ‘파’와 ‘쌌다’로 적을 수 있다.
- ③ ㉢을 적용할 때, 어간 ‘(밭로) 차-’에 ‘-이-’가 붙은 ‘(밭에) 차이-’에 ‘-었다’가 붙으면 ‘채었다’로 적을 수 있다.
- ④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벌이) 쏘-’에 ‘-이-’가 붙은 ‘(벌에) 쏘이-’에 ‘-어’가 붙으면 ‘췌’로 적을 수 있다.
- ⑤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오줌을) 누-’에 ‘-이-’가 붙은 ‘(오줌을) 누이-’에 ‘-어’가 붙으면 ‘뉘여’로 적을 수 있다.

[40~43] 다음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신문 기사를 다루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 김 모 군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 군이 돌아온 데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역할이 컸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먼저 △△ 신문, 함께 보시죠.



진행자: 표제가 '실종 신고 느는데 저조한 지문 등록률'인데요, 기사 내용 일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은 55.0%, 치매 환자는 25.8%만 지문 등을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등록률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가: △△ 신문에서 언급한 대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지문과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 시에 이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문에서는 홍보가 부족해 지문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개인 정보 유출은 민감한 사안이니 정보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전문가: ㉢ 사전등록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는 ㉣ 아동이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고,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그래도 등록률을 높이려면 현재보다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이 있어야겠네요. △△ 신문을 더 살펴볼까요?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전문가: 지문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평균 56시간, 등록하면 평균 50여 분 정도 걸립니다.

진행자: 시간이 많이 단축되네요. 이제 다른 기사들도 살펴볼까요? □□ 신문인데요, 간단히 보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 신문에는 지문 등 사전등록 스마트폰 앱이 소개되어 있네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 '-느니까'를 통해 시청자를 높이며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를 하고 있다.
- ② ㉡: 접속 부사 '그래서'를 통해 앞 문장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보조사 '느'를 통해 '사전등록 정보'가 문장의 화제임과 동시에 주어로 사용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연결 어미 '-면'을 통해 앞 절의 내용이 '사전등록 정보'가 '자동 폐기'되는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보조 용언 '보다'를 통해 '앱'을 사용하는 것이 시험 삼아 하는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22 9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는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와 차례대로 결합하여 ‘손잡다’와 같은 합성 동사나 ‘쓸모없다’와 같은 합성 형용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합성 동사와 합성 형용사를 묶어 합성 용언이라고 한다. 합성 용언은 크게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구성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 요소들이 맺는 문법적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쓸 만한 가치 없다.’를 뜻하는 ㉠ ‘쓸모없다’는 명사 ‘쓸모’와 형용사 ‘없다’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주고, ‘손을 마주 잡다.’를 뜻하는 ㉡ ‘손잡다’는 명사 ‘손’과 동사 ‘잡다’가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리고 ‘남에게 드리내어 뽀낼 만한 거리로 하다.’를 뜻하는 ㉢ ‘자랑삼다’는 명사 ‘자랑’과 동사 ‘삼다’가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한편 의미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가령 ‘쓸모없다’는 구성 요소인 ‘쓸모’와 ‘없다’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 반면 ‘주름잡다’는 구성 요소인 ‘주름’과 ‘잡다’의 의미를 벗어나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이다. ‘주름잡다’의 이와 같은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롭게 획득되었다는 사실은, ‘나는 바지에 주름 잡는 일이 너무 어렵다.’의 ‘주름 잡는’의 의미를 고려하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합성 용언 중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불타다’가 ‘나는 지금 학구열에 불타고 있다.’에서와 같이 ‘의욕이나 정열 따위가 끓어오르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에는 ‘학구열에’라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실은 ‘불타다’가 ‘장작이 지금 불타고 있다.’에서와 같이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할 때 더 분명해진다.

3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시장에서 책가방을 값싸게 샀다.’의 ‘값싸게’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② ‘나는 눈부신 태양 아래에서 있었다.’의 ‘눈부신’은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③ ‘누나는 나를 보자마자 뒤돌아 앉았다.’의 ‘뒤돌아’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④ ‘언니는 밤새워 숙제를 다 마무리했다.’의 ‘밤새워’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⑤ ‘큰형은 앞서서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의 ‘앞서서’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37.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어미는 용언 어간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누어진다. 선어말 어미는 용언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제나 높임과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선어말 어미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쓰일 수도 있고 아예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다. 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달리 하나만 붙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머무시는 동안 ㉠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 이 부분에서 물이 ㉡ 썩을 가능성이 높다.
- ㉢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류를 챙겨 주세요.
- 시원한 식혜를 먹고 갈증이 ㉣ 가셨겠구나.
- 항구에 ㉤ 다다른 배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했다.

- ①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② ㉡: 선어말 어미 없이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 선어말 어미 세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④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 선어말 어미 한 개와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39.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학생: 선생님, 표준 발음법 제18항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조항에서 ‘ㄱ, ㄷ, ㅂ’ 옆의 괄호 안에 다른 받침들이 포함된 것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ㅃ, ㅍ, ㅍ, ㅍ))’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선생님: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받침이 ‘ㄱ, ㄷ, ㅂ’이 아니라도, 음운 변동의 결과로 그 발음이 [ㄱ, ㄷ, ㅂ]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학생: 아, 그렇다면 [A]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거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밖만[방만]’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 ② ‘폭넓다[퐁널따]’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 ③ ‘값만[감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 ④ ‘겉늬다[진늬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 ⑤ ‘호박잎[호방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22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합성 명사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명사이다. 합성 명사의 어근은 복합어일 수도 있는데 ‘갈비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갈비찜’의 직접 구성 요소는 ‘갈비’와 ‘찜’이다. 그런데 ‘갈비찜’을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갈비’, ‘찌-’, ‘-ㅁ’이라는 형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합성 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를 세밀히 알 수 있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 하고,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 한다.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볼 수 있다. 합성 명사의 두 어근에도 ㉡ 중심적 의미나 ㉢ 주변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사전에서 뜻풀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합성 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 주변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매섭게 노려보는 눈’을 뜻하는 합성 명사 ‘도끼눈’은 ‘도끼’와 ‘눈’으로 분석되는데,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도끼’의 주변적 의미는 ‘도끼’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 가지고 있던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합성 명사의 어근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든, 그 어근은 합성 명사 내부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다. 이는 ‘비바람’, ‘이슬비’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의 위치와 ‘벼락공부’, ‘물벼락’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벼락’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중 일부는 합성 명사 내부의 특정 위치에서 주로 관찰된다. 가령 ‘아주 달게 자는 잠’을 뜻하는 ‘꿀잠’에는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것’이라는 ‘꿀’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꿀’의 이러한 의미는 합성 명사의 선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그리고 ‘넓게 깔린 구름’을 뜻하는 ‘구름바다’에는 ‘무엇이 넓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바다’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바다’는 합성 명사의 후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35. ㉠에 따를 때, <보기>에 제시된 ㉡~㉤ 중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은 것은?

<보 기>

- 동생은 오늘 ㉡ 새우볶음을 많이 먹었다.
- 우리는 결코 ㉢ 집안싸움을 하지 않겠다.
- 요즘 농촌은 ㉣ 논밭갈이에 여념이 없다.
- 우리 마을은 ㉤ 탈춤놀이가 참 유명하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다음은 중세 국어의 문자 및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에서 ㉠~㉣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 보자.

- ㉠ 乃냉終중ㄱ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느니라
[중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다시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
- ㉡ ㅁ를 입시울소리 아래 니셔 쓰면 입시울 가비야쁜 소리 드외느니라
[ㅁ을 순음 글자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 글자가 된다]
- ㉢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굴바 쓰라 乃냉終중ㄱ소리도 혼가지라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하려면 옆으로 나란히 쓰라 중성 글자도 마찬가지이다]
- ㉣ ㆍ와 ㅡ와 ㅓ와 ㅕ와 ㅛ와 ㅜ와 ㅠ와란 첫소리 아래 브터 쓰고
[‘ㆍ, ㅡ, ㅓ, ㅕ, ㅛ, ㅜ, ㅠ’는 초성 글자 아래에 붙여 쓰고]
- ㉤ ㅣ와 ㅑ와 ㅓ와 ㅕ와 ㅛ와란 울흔녀기 브터 쓰라
[‘ㅣ, ㅑ, ㅓ, ㅕ, ㅛ’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붙여 쓰라]

[자료] ㅁ니, ㅁ분, 사비, 스ㄱ불, ㅁㅁ, ㅎ

- ① ㉠: ㅁ분, ㅁㅁ, ㅎ ② ㉡: 사비, 스ㄱ불
- ③ ㉢: ㅁ니, ㅁㅁ, ㅎ ④ ㉣: ㅁ분, 스ㄱ불, ㅎ
- ⑤ ㉤: ㅁ니, 사비, ㅁㅁ

38. 다음은 된소리되기와 관련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오늘은 표준 발음을 대상으로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되기를 알아보시다. ‘(신발을) 신고[신:꼬]’처럼 용언의 활용에서는 마지막 소리가 ‘ㄴ, ㄹ’인 어간 뒤에 처음 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결합하면 어미의 처음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요.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국어에서 ‘ㄱ, ㄷ, ㅅ, ㅈ’이 ‘ㄴ, ㄹ’ 뒤에 이어지면 항상 된소리로 바뀌나요?

선생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표준 발음에서는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하거나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먼지[먼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ㄴ, ㄹ’ 뒤에 ‘ㄱ, ㄷ, ㅅ, ㅈ’이 있는 경우에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다음 ㉠~㉢의 밑줄 친 말에서 ‘ㄴ’이나 ‘ㄹ’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 ㉠ 피로를 푼다[푼다]
- ㉡ 더운 여름도[여름도]
- ㉢ 대문을 잠가[잠가]
- ㉣ 품에 안겨라[안겨라]
- ㉤ 학교가 큰지[큰지]

학생: 그 이유는 [A] 때문입니다.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의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② ㉡의 ‘ㄹ’과 ‘ㄷ’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③ ㉢의 ‘ㄹ’과 ‘ㄱ’이 모두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④ ㉣의 ‘ㄴ’과 ‘ㄱ’이 어미끼리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⑤ ㉤의 ‘ㄴ’과 ‘ㅈ’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39.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 ㉡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 ㉢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 ㉣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 ① ㉠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 ③ ㉠과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과 ㉣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23 6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과 같은 의미로 ‘나’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살던’의 의미상 주어롤 나타내는 특이한 구조이다. 이처럼 관형격 조사 ‘의’가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중세 국어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聖人의(聖人+의) ㄹ르치산 法(성인의 가르치신 법)’의 경우, ‘聖人’은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고 있지만 후행하는 용언인 ‘ㄹ르치산’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는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의/의’가, 무정 체언 또는 존칭의 유정 체언에는 ‘시’ 결합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시’ 쓰일 자리에 ‘의’가 쓰였기 때문이다.

중세 국어 격조사 결합 원칙의 또 다른 예외는 부사격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을 기준으로, 모음 조화에 따라 ‘나죠히’(나죠히+에), ‘므레’(물+에)에서처럼 ‘애/에’가 쓰인다. 단, 끝음절이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날 때에는 ㉠ ‘뉘에’(뉘+에)에서처럼 ‘에’가 쓰였다. 그런데 ‘애/에/에’가 쓰일 위치에 부사격 조사인 ‘의/의’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외는 ‘봄’, ‘나조흐’[저녁], ㉡ ‘우흐’[위], ‘밀’ 등의 일부 특수한 체언들에서 확인된다. 가령, ‘나조흐’에는 ‘의’가 결합하여 ㉢ ‘나조히’(나조흐+의)로, ‘밀’에는 ‘의’가 결합하여 ‘미히’(밀+의)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 가운데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독특한 경우도 있다. 가령, ‘익그에’는 관형격 조사 ‘익’에 ‘그에’가 결합된 형태이고 ‘스기’ 역시 관형격 조사 ‘스’에 ‘기’가 결합된 부사격 조사다. 이들은 ㉣ ‘늬미그에’(늬+익그에)나 ‘어마넛기’(어마님+스기)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평칭의 유정 명사 ‘늬’에는 ‘익그에’가, 존칭의 유정 명사 ‘어마님’에는 ‘스기’가 쓰인다. 중세 국어의 ‘익그에’와 ‘스기’는 각각 현대 국어의 ‘에게’와 ㉤ ‘께’로 이어진다.

36.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자 료>

- ㉠ 수품(수플+ㅅ) 神靈이 길헤 나아
(현대어 풀이: 수품의 신령이 길에 나와)
- ㉡ ㄴ뵆(ㄴㅅ+의) 말 드러샤 알 씨라
(현대어 풀이: 남의 말 들어야 아는 것이다)
- ㉢ 世界ㅅ(世界+ㅅ) 일을 보샤
(현대어 풀이: 세계의 일을 보시어)
- ㉣ 이 사르미(사름+의) 잇는 方面을
(현대어 풀이: 이 사람의 있는 방면을)
- ㉤ 孔子의(孔子+의) 기티신 글워리라
(현대어 풀이: 공자의 남기신 글이다)

- ① ㉠: ‘神靈(신령)’이 존칭의 유정 명사이므로 ‘수플’에 ‘ㅅ’이 결합한 것이군.
- ② ㉡: ‘ㄴ뵆’가 유정 명사이고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의’가 결합한 것이군.
- ③ ㉢: ‘世界(세계)ㅅ’이 ‘보샤’의 의미상 주어이고, ‘ㅅ’은 예외적 결합이군.
- ④ ㉣: ‘이 사르미’가 ‘잇는’의 의미상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군.
- ⑤ ㉤: ‘孔子(공자)의’가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군.

37.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보기>의 조건이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보 기>

- ㉠ 현재 시제만 쓰일 것.
- ㉡ 서술어의 자릿수가 둘일 것.
- ㉢ 안긴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

실현 조건	예문
㉠, ㉡	㉠
㉠, ㉢	㉡
㉡, ㉢	㉢

- ① ㉠: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 ② ㉠: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
- ③ ㉡: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 ④ ㉢: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
- ⑤ ㉢: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

23 9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복합어는 합성과 파생을 통해 형성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의미를 고려하여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합성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단어이고,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접사인 단어이다. 그리고 한 개의 형태소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꿀벌’은 그 직접 구성 요소 ‘꿀’과 ‘벌’이 모두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그리고 ‘꿀’과 ‘벌’은 각각 한 개의 형태소이다.

일반적으로 합성과 파생을 통해 단어가 형성될 때에는 그 구성 요소의 형태가 유지된다. 그런데 단어가 형성될 때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먼저 ㉠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대뉘’는 ‘뉘싯대를 써서 하는 뉘싯질’을 뜻하는 ‘대뉘시’의 일부가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이다. 다음으로 ㉡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처음절기리 결합한 경우가 있다. ‘고법(高法)’은, ‘고등(高等)’과 ‘법원(法院)’이 결합하여 형성된 ‘고등 법원’이라는 말의 ‘고(高)’와 ‘법(法)’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또한 ㉢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에서 어떤 말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결합한 경우가 있다.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에 나가 교육 실습을 하는 학생’을 뜻하는 ‘교생(敎生)’은 ‘교육(敎育)’의 앞부분과 ‘실습생(實習生)’의 뒷부분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이처럼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이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는, 그 단어의 형성에 사용된 말과 여러 의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뉘’와 ‘대뉘시’는 서로 바꾸어 써도 그 의미에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서로 유의 관계를 맺고, ‘고법’은 ‘법원’의 일종이므로, ‘고법’과 ‘법원’은 상하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고법’이 형성될 때 사용된 ‘고등’은 ‘고법’과 의미 관계를 맺지 않는다.

35.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용꿈’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군.
- ㉡ ‘봄날’과 ‘망치질’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이므로 파생어이군.
- ㉢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군.
- ㉣ ‘놀이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군.
- ㉤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을 뜻하는 ‘꽃고무신’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꽃고무’와 ‘신’으로 분석할 수 있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을 탐구해 보면, 한 단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나기도 한다.

- 한 단어에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난 예
예) 빗[빈], 여덟[여덜], 맨입[맨닙], 축하[추카]
- 한 단어에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
예) 밝는[밤:는], 닭장[닥짱]
- 한 단어에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난 예
예) 앞날[암날], 벗꽃[벌꼇]

이를 참고하여 ㉠~㉤에 해당하는 예를 두 개씩 생각해 보자.

- ㉠ ‘교체가 한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한 번, 축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

- ① ㉠: 재밋는[재민는], 엽매는[영매는]
- ② ㉡: 불이익[불리익], 견인력[겨닌력]
- ③ ㉢: 똑같이[똑가치], 과일힌[과무친]
- ④ ㉣: 읊조려[읍조려], 걸 넘어[건늘거]
- ⑤ ㉤: 버들잎[버들립], 덧입어[던니버]

||

==>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난 상황)

민수: 영이야, ㉠ 우리 둘이 뭐 하고 놀까? 이 강아지랑 놀까?
 영이: (민수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아, 애?
 민수: 응, 애가 전에 말했던 봄이야. 봄이 동생 숨이는 집에 있고.
 영이: 봄이랑 뭐 하고 놀까? 우리 강아지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해서 ㉡ 우리 둘은 실뭉치를 자주 가지고 놀아. 너네 강아지들도 그래?
 민수: 실뭉치는 ㉢ 둘 다 안 좋아해. 그런데 공은 좋아해서 ㉣ 우리 셋은 공을 갖고 자주 놀아. 그래서 공을 챙겨 오긴 했어.
 영이: 그렇구나.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하니까, 다음에 내가 혼자 나오고 내가 별이랑 나오면 그때 ㉤ 우리 셋은 실뭉치를 갖고 놀면 되겠다.
 민수: 그러자. 그럼 오늘 ㉥ 우리 셋은 공을 가지고 놀자.

- ①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 ②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 ③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 ④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 ⑤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38.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보 기>—

이곳의 지형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

- ① 그 광물이 원래는 귀금속에 속했다.
- ②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뻐다.
- ③ 우리는 원두막을 하루 만에 지었다.
- ④ 나는 시간이 남았기에 그와 걸었다.
- ⑤ 나는 구호품을 수해 지역에 보냈다.

39. <보기>는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34항 (붙임 1) ‘ㄱ, ㅋ’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5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ㅏ/ㄱ, ㅑ/ㄱ’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5항 (붙임 2)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ㄴ, ㄷ’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ㅋ’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7항 ‘ㅏ, ㅑ, ㅓ, ㅕ,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ㅑ, ㅋ, ㅓ, ㅕ, ㅓ’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 ① ㉠을 적용하면 ‘(날이) 개었다’와 ‘(나무를) 베어’는 각각 ‘갬다’와 ‘베’로 적을 수 있다.
- ② ㉡을 적용하면 ‘(다리를) 꼬아’와 ‘(죽을) 쑤었다’는 각각 ‘파’와 ‘췌다’로 적을 수 있다.
- ③ ㉢을 적용할 때, 어간 ‘(발로) 차-’에 ‘-이-’가 붙은 ‘(발에) 차이-’에 ‘-었다’가 붙으면 ‘채었다’로 적을 수 있다.
- ④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별이) 쏘-’에 ‘-이-’가 붙은 ‘(별에) 쏘이-’에 ‘-어’가 붙으면 ‘췌’로 적을 수 있다.
- ⑤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오줌을) 누-’에 ‘-이-’가 붙은 ‘(오줌을) 누이-’에 ‘-어’가 붙으면 ‘뉘여’로 적을 수 있다.

- ||

21-6

35-5 || 50%

41-4 || 44%

21-9

37-4 || 47%

36-2 || 35%

38-5 || 32%

21-

41-3 || 61%

38-1 || 58%

39-5 || 51%

22-9

37-4 || 59%

39-2 || 42%

35-2 || 40%

22-

35-2 || 79%

39-1 || 71%

37-1 || 32%

38-4 || 28%

23-6

37-2 || 54%

36-5 || 45%

23-9

35-4 || 80%

37-5 || 45%

==>

35.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정답해설 : ‘캐묻다’는 ‘캐묻고, 캐묻어’ 등으로 활용하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엿듣다’ 역시 ‘엿듣고, 엿들어’ 등으로 활용하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과 ㉡을 모두 만족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구르다’는 ‘구르니, 굴러’ 등으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잠그다’는 ‘잠그니, 잠가’ 등으로 활용하는데, ‘-’가 탈락하는 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구르다’와 ‘잠그다’는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흐르다’는 ‘흐르니, 흘러’ 등으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푸르다’는 ‘푸르니, 푸르러’ 등으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은 만족하지만 ㉥을 만족하지 않는다. ③ ‘뒤집다’는 ‘뒤집고, 뒤집어’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꺼입다’는 ‘꺼입고, 꺼입어’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은 만족하지만 ㉣을 만족하지 않는다. ④ ‘붙잡다’는 ‘붙잡고, 붙잡아’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정답다’는 ‘정답고, 정다워’ 등으로 활용하는 ‘ㅂ’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붙잡다’와 ‘정답다’는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41. 정보 전달과 설득

정답해설 : [A]에는 ‘△△군 관광객 및 숙박 시설 추이’와 ‘여행 1회당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왼쪽의 시각 자료는 △△군 관광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숙박 시설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으며, 오른쪽의 시각 자료는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시각 자료를 통해 체류형 관광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 ~ 평가를 받아 왔다.’라는 내용 뒤에 시각 자료를 배치하여 ○○초등학교를 숙박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 ② 왼쪽에 배치된 시각 자료에서는 △△군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우상향하는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③ 오른쪽에 배치된 시각 자료에서는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지폐 이미지를 활용한 그래프로 제시하여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고 있다. ⑤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을 담고 있는 지역 경제 전문가 오□□ 박사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고 있다.

21년 9평

36.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옷만 → 온만 → [온만]’에서는, ‘ㅍ → ㅌ’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ㄷ → ㄴ’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굳’의 ‘ㄷ’은 종성에 올 수 있으므로 ‘굳이[구지]’의 구개음화(교체)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③ ‘물약 → 물낙 → [물락]’에서는 첨가와 교체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나는데, 둘 다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④ ‘값도’가 [갑또]로 소리 나는 현상에서는 ‘ㅃ → ㅍ’으로 종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ㄷ → ㅌ’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⑤ ‘핥는 → 할는 → [할른]’에서는 ‘ㄹ → ㄴ’으로 종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ㄴ → ㄹ’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37. 파생어의 형성

정답해설 : ㉠에 쓰인 접사는 ‘-치-’, ‘-리-’, ‘-히-’, ‘-뜨리(다)’이다. ‘살리다’, ‘입히다’에 쓰인 접사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하지만, ‘밀치다’와 ‘깨뜨리다’에 쓰인 접사는 강조의 뜻을 더할 뿐 사동사를 파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 쓰인 접사는 ‘-이’, ‘-음’, ‘-기’, ‘-개’인데, 이들은 각각 용언 ‘뉘-’, ‘민-’, ‘크-’, ‘지우-’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한다. ② ㉠에 쓰인 접사는 ‘-이(다)’, ‘-대(다)’, ‘-거리(다)’인데, 이들은 각각 부사 ‘끄덕’, ‘출렁’, ‘반짝’에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한다. ③ ㉠에 쓰인 접사는 ‘-보’, ‘-꾼’, ‘-쟁이’, ‘-꾸러기’인데, 이들은 모두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파생한다. ⑤ ㉠에 쓰인 접사는 ‘-질’, ‘푹-’, ‘휘-’, ‘-기’이다. ‘부채질’, ‘푹나물’에서는 접사가 명사 어근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하며, ‘휘감다’, ‘빼앗기다’에서는 접사가 동사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과 같은 품사인 동사를 파생한다.

38.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관형사절 ‘동생이 찾아뵈려던’에는 객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이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관형사절 ‘편찮으시던’에는 주체 높임의 대상인 ‘어르신’이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주어로 실현되었다. ② 관형사절 ‘고향에 계신’에는 주체 높임의 대상인 ‘부모님’이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③ 관형사절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에서 ‘할아버지’는 주체 높임의 대상이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관형어에 포함되었다. ④ 관형사절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에는 객체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가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부사어로 실현되었다.

38. 서술어의 자릿수

정답해설 : <보기>에 쓰인 ‘유리하다’는 ‘이익이 있다.’라는 뜻을 지니는데,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관계되어 딸리다.’라는 뜻을 지니는 ‘속하다’ 역시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벌어진 옷깃이나 장막 따위를 바로 합쳐 단정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여미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③ ‘재료를 들여 밥, 옷, 집 따위를 만들다.’라는 뜻을 지니는 ‘짓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④ ‘다리를 움직여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기다.’라는 뜻을 지니는 ‘걷다’는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⑤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보내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39.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정답해설 : ‘누-+--이-+-어’는 ㉠에 따라 ‘뉘어’로 적을 수도 있고, ㉡에 따라 ‘누여’로 적을 수도 있다. ㉠이 적용된 ‘뉘어’에 대해 다시 ㉡을 적용하여 ‘뉘여’로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 적용되는 예로는 ‘가지-+--어’처럼 ‘ㅣ’ 뒤에 ‘-어’가 와서 ‘켜’로 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갸다’는 ㉦이 적용된 결과 ‘개’ 뒤에 ‘-었-’이 어울려 준 경우이고, ‘베’는 ㉦이 적용된 결과 ‘개’ 뒤에 ‘-어’가 어울려 준 경우이다. ② ‘짜’는 ㉢이 적용된 결과 ‘ㅏ’ 뒤에 ‘-아’가 어울려 ‘ㅏ’로 된 경우이고, ‘쫘다’는 ㉢이 적용된 결과 ‘ㅏ’ 뒤에 ‘-었-’이 어울려 ‘쫘’이 된 경우이다. ③ ‘채었다’는 ㉠이 적용된 결과 ‘ㅏ’로 끝난 어간 ‘차-’에 ‘-이-’가 와서 ‘채-’로 줄고, 여기에 ‘-었다’가 붙은 경우이다. ④ ㉡을 적용하여 ‘쏘-+--이-’는 ‘썩-’로 적을 수 있고, 여기에 ㉡을 적용하여 ‘썩-+-어’를 ‘썩’로 적을 수 있다.

4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에 쓰인 ‘사전등록 정보는’는 서술어 ‘저장하고 있습니다’의 목적어이다. 따라서 ‘사전등록 정보는’가 주어로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방송의 시작과 함께 진행자가 한 인사말로, 진행자는 상대 높임을 위해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 ‘-십시오’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의 앞 문장은 김 모군이 집으로 돌아온 사건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역할이 컸다는 내용이다. 이 문장은 오늘 기사들 중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다룬 내용이 많다는 ㉢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접속 부사 ‘그래서’는 앞 문장과 ㉢의 내용이 인과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에 쓰인 ‘-면’은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 선행절 ‘아동이 18세에 도달하다’와 후행절 ‘(사전등록 정보가) 자동 폐기되다’를 연결하고 있다. ⑤ ㉡에 쓰인 보조 동사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뜻한다.

22년 9평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뒤돌아’는 ‘뒤로 돌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값싸게’는 ‘값이 싸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② ‘눈부신’은 ‘눈이 부시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④ ‘밤새워’는 ‘밤을 새우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⑤ ‘앞서서’는 ‘앞에 서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37. 용언

정답해설 : ㉠의 ‘(갈증이) 가셨겠구나’는 ‘가시-+-였-+-겠-+-구나’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였-’, ‘-겠-’은 선어말 어미이고 ‘-구나’는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 ‘즐거우셨길’은 ‘즐겁-+-(-으)시-+-였-+-기+ㄹ’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으)시-’, ‘-였-’은 선어말 어미이고 ‘-기’는 전성 어미이다. 이때의 ‘ㄹ’은 목적격 조사이다. ② ㉡의 ‘됐을’은 ‘새-+-였-+-을’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였-’은 선어말 어미이고 ‘-을’은 전성 어미이다. ③ ㉢의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번거롭-+-(-으)시-+-겠-+-지만’으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으)시-’, ‘-겠-’은 선어말 어미이고 ‘-지만’은 연결 어미이다. ④ ㉣의 ‘다다른’은 ‘다다르-+-ㄹ’으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ㄹ’은 전성 어미이다. ㉤에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39.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겉늬다[건늬다]’에서는 ‘겉’의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ㄷ’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ㄴ’으로 발음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밖만[방만]’에서는 ‘밖’의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ㄱ’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ㅇ’으로 발음된다. ② ‘폭넓다[퐁넙다]’에서는 ‘폭’의 ‘ㄱ’이 비음화 현상의 영향으로 ‘ㅇ’으로 발음된다. ③ ‘값만[감만]’에서는 ‘값’의 ‘ㅂ’이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을 받아 ‘ㅃ’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ㅁ’으로 발음된다. ④ ‘호박잎[호방닙]’에서는 ‘호박 + 잎’의 과정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고, 이 ‘ㄴ’의 영향으로 ‘호박’의 ‘ㄱ’에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ㅇ’으로 발음된다.

22년 수능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와 ㉡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각각 '(집+안)+(싸우--+ㅁ)'과 '(논+밭)+(갈--+이)'로 분석되어 '(어근+어근)+(어근+접사)'의 내부 구조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새우+(볶--+음)'으로 분석되고, ㉣는 '[탈+(추--+ㅁ)]+(놀--+이)'로 분석되기 때문에 ㉠, ㉡와 내부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

정답 ②

37. 한글의 창제

정답해설 : '분, 짝, 흙' 외에 '스꺄불'에서도 중성 글자 'ㄹ'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⑥는 ㅂ 순경음의 표기에 대한 내용으로, '사빤, 스꺄불'에서 '빙'을 확인할 수 있다. ③ ⑦는 초성과 중성 자리에 쓰이는 병서에 대한 내용으로, '삐니, 짝, 흙'에서 각각 'ㅍ, ㅍ, 리'를 확인할 수 있다. ④ ④는 초성 글자 아래에 쓰이는 중성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 '분, 스꺄불, 흙'에서 'ㄴ, ㅡ, ㆍ'를 확인할 수 있다. ⑤ ⑤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쓰이는 중성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 '삐니, 사빤, 짝'에서 'ㅣ, ㅏ'를 확인할 수 있다.

38. 표준어 규정의 주요 내용

정답해설 : ㉠의 '안겨라'는 '안-+-기-+-어라'로 분석되는데, 이때의 '-기-'는 피·사·동 접사이다. 즉,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 '푼다'는 용언 어간에 종결 어미 '-ㄴ다'가 결합한 경우로,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② ②의 '여름도'는 체언 '여름'과 조사 '도'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③ ③의 '잠가'는 '잠그-+-아'로 분석되는데, 'ㄹ'과 'ㄱ'이 모두 '잠그-'라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⑤의 '큰지'는 용언 어간에 어미 '-ㄴ지'가 결합한 경우로, 'ㄴ'과 'ㅈ'이 모두 어미에 속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39.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의 관형사절 '내 친구가 보낸'에는 '누군가에게 혹은 어디에' 정도의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고, ㉡의 명사절 '테니스 배우기'에는 '내가' 정도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명사절은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 기능을 한다. ③ ㉠의 명사절만 '받다'의 주체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의 안긴문장은 관형사절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이며,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다. ④ ㉡의 안긴문장은 전체 문장에서 관형어 기능을 하며, ㉢의 안긴문장 '신이 닳도록'은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한다. ㉣에서의 보어는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이다. ⑤ ㉡의 관형사절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지 않았으며, ㉢의 관형사절 '아름다운'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23년 6평

36.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공자의 남기신 글’은 ‘공자가 남기신 글’이라는 의미이므로 ‘孔子(공자)의’는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이다. ‘孔子(공자)’가 존칭의 유정 체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스’이 결합하여야 하지만 ‘의’가 결합하였다. 따라서 예외적 결합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수플’이 무정 체언이기 때문에 ‘스’이 결합한 것이다. ② ‘놈’이 평칭의 유정 체언이고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이’가 결합한 것이다. ③ ‘世界(세계)스’를 ‘보샤’의 의미상 주어로 볼 수 없다. 또한 ‘世界(세계)’가 무정 체언이기 때문에 ‘스’이 결합한 것이어서 예외적 결합으로 볼 수도 없다. ④ ‘이 사르미’가 ‘잇논’의 의미상 주어이기는 하지만, ‘사름’이 평칭의 유정 체언이고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이’가 결합한 것이어서 예외적 결합이 아니다.

37.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

정답해설 : ‘선생님께서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는 현재 시제가 쓰인 문장이고, ‘살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 ㉡가 모두 실현되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는 ‘-니다’를 통해 현재 시제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라다’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③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는 현재 시제가 쓰인 문장이다. 그러나 연결 어미 ‘-으므로’가 쓰인 이어진문장으로, 안긴문장은 없다. 따라서 ㉡는 실현되지 않았다. ④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에서는 안긴문장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가 전체 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한다. 그러나 ‘-었-’을 통해 이 문장에는 과거 시제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는 실현되지 않았다. ⑤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에서 안은문장 전체의 서술어 ‘슬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참고로 안긴문장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의 서술어 ‘받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나 안긴문장은 전체 문장의 부사어가 아니라 관형어로 기능한다.

23년 9평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놀이방’은 직접 구성 요소가 ‘놀이’와 ‘방’이다. ‘놀이’는 ‘놀-’과 ‘-이’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단맛’은 직접 구성 요소가 ‘단’과 ‘맛’이다. ‘단’은 ‘달-’과 ‘-ㄴ’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용꿈’은 직접 구성 요소가 ‘용’과 ‘꿈’이며, 이 중에서 ‘꿈’은 ‘꾸-’와 ‘-ㅁ’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 아니다. ② ‘망치질’은 직접 구성 요소가 ‘망치’와 ‘-질’이며, ‘-질’은 접사이므로 ‘망치질’은 파생어이다. 그러나 ‘봄날’은 직접 구성 요소가 ‘봄’, ‘날’이기 때문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지은’과 ‘이’이며, ‘이’는 자립 형태소이다. 그러나 ‘짓- + -은’으로 분석되는 ‘지은’에는 자립 형태소가 없다. ⑤ 의미를 고려할 때 ‘꽃고무신’의 직접 구성 요소는 ‘꽃’과 ‘고무신’이다.

37.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버들잎 → [버들립]’에서는 ‘버들’과 ‘잎’ 사이에 ‘ㄴ’이 첨가되며, 첨가된 ‘ㄴ’이 ‘ㄹ’의 영향으로 ‘ㄹ’로 교체된다.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첨가가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덧입어 → [던니버]’에서는 ‘덧’과 ‘입어’ 사이에 ‘ㄴ’이 첨가된다.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ㅅ’이 ‘ㄷ’으로 교체되며, 교체된 ‘ㄷ’은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첨가가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둘 다 ㉠에 해당하는 예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재밋는 → 재민는 → [재민는]’에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읽매는 → 역매는 → [영매는]’에서는 탈락이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② ‘불이익 → 불니익 → [불리익]’에서는 첨가가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견인력 → [겨닌력]’에서는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③ ‘똑같이 → 똑같이 → [똑까지]’에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파묻힌 → 파무틴 → [파무친]’에서는 축약이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④ ‘옴조려 → 옴조려 → 옴쪼려 → [옴쪼려]’에서는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걸늘어 → 걸늘어 → [건늘거]’에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